“체험 없는 이론 그만”… 도심속 참선지도

(사)참선지도자협회, 9월부터 ‘참선 아카데미 대강좌’

일반인 · 직장인 강의 나눠
팔정도 체험 이끄는 수행
한국불교 대표 선승 총출동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마음챙김 · 심리치료 · 내면성찰 등 종교색을 배제한 명상법이 개발되고 유사수행까지 횡행하는 요즘, 깨달음을 찾아 정진하는 선승들이 산문 밖으로 나와 도심서 진정한 수행의 요체를 전한다.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협회장 각산)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일반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1기 참선아카데미 대강좌’를 서울 강남 참불선원에서 개강한다. 일반인 대상 첫 강의는 9월 14일, 직장인 대상은 15일 각각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실참 중심의 수행지도

강좌는 총 13회 26강으로 진행되며 △참선명상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안반선(호흡명상) △선(禪)과 융합한 심리치료 △선문화 불교전법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불교수행 등 새로운 명상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참선명상을 콘텐츠로 충주 석종사 · 인제 백담사 · 양평 상원사 · 해남 미황사 · 강화도 연등국제선원 등에서 ‘참선 템플스테이’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선아카데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간 산문을 떠나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수행정진에 매진해온 선승들이 대거 참선지도에 나선다는 점이다.

우선 산사순례와 특별법문에는 봉암사 조실 적명 스님과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이 참여하며, 석종사 참선템플스테이서는 혜국 스님이 수행지도를 맡는다. 아울러 강의는 내소사 선덕 일오 스님,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해인사 선원장 효담 스님, 前봉암사 한주 정과 스님, 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 한산사 용성선원장 선법 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부의장 원근 스님, 선학사 자애선원장 대위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 등이 참선의 이론과 실참을 지도한다.

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은 “체험 없는 이론은 번쇄철학이다. 많은 명상법들이 각광받다가 대중에게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미진한 체험 때문”이라며 “간화선을 포함한 참선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치유 목적으로 명상을 찾지만 참선은 치유를 넘어 ‘완전한 내려놓음’으로 인도하므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선지도사’ 양성 계획

한편 참선지도자협회는 참선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참선지도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협회 측은 “현대인의 정신적 불안과 결핍을 치유하고, 향후 도래할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롭고 수준 높은 참선지도사를 양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선아카데미는 참선지도사 자격증 인증 과정으로 인정된다.

협회는 또한 △국제명상포럼 · 참선심포지움 · 세계명상 힐링캠프 운영 등 명상 마이스(MICE) 진흥 △세계적 명상센터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국제연합체 결성 △참선지도자 발굴 · 육성 △참선수행 심리테라피 및 힐링콘텐츠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회장 각산 스님은 “실참 경력이 풍부한 선마스터들의 참선교육을 통해 참선지도사를 배출, 참선과 명상의 대중화는 물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참선이 불교 수행법이라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보편적 생활지침으로 자리 잡고, 한국의 정신문화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참선아카데미 대강좌는 일반인반(매주 금)과 직장인반(매주 토)으로 나눠 운영되며, 정원은 각 150명 선착순 마감이다. 수강료는 28만원. 1577-3696

“‘낙태’ 말고 ‘임신중단’ 표현을”

화쟁위 등, 8월 22일 낙태 관련 2차 집담회 개최

변신원 “현실 반영한 다초점 정책 필요”
이미령 “인간 믿고 낙태 허용 지켜봐야”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종교적 입장을 모색하는 집담회가 열렸다.〈사진〉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심산)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8월 2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낙태죄,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2차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현행법의 한계를 분석한 뒤 낙태를 포함한 사회적 이슈에 불교가 관여하는 방식을 정리하는 시도가 이뤄졌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임신중단’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교수는 “‘낙태’에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부정적인 행위란 뜻이 내포돼 있다”며 “편견적 태도를 포함한 낙태대신 중립적인 용어인 ‘임신중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교수는 낙태죄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모자보건법 14조’가 사문화된 규정이라 지적했다. 변 교수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14조는 기혼여성에 한해 배우자 동의를 얻으면 낙태를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변 교수는 “비명시적이며 악용 소지가 있는 모자보건법 세부조항은 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퇴행 수준에 머물러있음을 보여준다”며 “태아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이란 이분법적 가치론을 넘어 성 평등, 국가의 양육책임까지 고려한 ‘다초점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미령 불교칼럼니스트는 ‘세간의 중생을 따라주는 것이 보살의 의무’라는 보현행원품의 수순중생(隨順衆生)을 상기해야한다고 짚었다. 이 씨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혼란과 방임의 모습이 번지더라도 결국 인간은 반성하는 존재로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불교는 낙태를 죄로 규정하지 말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고 문제에 대해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군승파송 50년, 역대 교구장 공적 기린다

군종교구, 8월 18일 호국연무사에 자광 스님 공덕비 건립

125억원 대작 불사 성료 공로로
1대 원광사, 3대 JSA 건립 예정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가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아 역대 군종교구장의 공덕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한다.

첫 사업으로 8월 18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신축불사에 크게 기여한 제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의 공덕비를 제막했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대작불사는 125억원의 불사금이 소요돼 대지 48,800여㎡에 건면적 5,28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총 3500여 명을 동시에 수용가능한 대형 법당 불사로 2년에 걸쳐 이뤄졌다.

이날 공덕비 봉안식에는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을 비롯해 육해공군 군승법사, 국군불교총신도회와 예비역불자회, 동국대학교 관계자와 불교어머니회 회원, 반야선원 신도 등 3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스님의 공덕비 제막을 축하했다.



호국연무사에서 신축불사에 크게 기여한 제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의 공덕비.

이 불사 동안 자광 스님은 교구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며 불사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불교미래를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회향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님께서 얼마나 큰 원력으로 불사를 진행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고 평가했다.

전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죽을 힘을 다했다. 이 건물 짓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호국연무사 신도들도 대거 참여해 장병들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게도 보람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호국연무사 금강회장은 “15,000여 명의 귀한 동참으로 이루어진 불사인연으로 신행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전법포교와 국군장병 무운장구를 위해 보다 널리 회향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종교구는 역대 군종교구장 선양사업 일환으로 군종교구로서 기틀을 다진 초대 교구장 일면 스님은 교구본사 원광사 내, JSA무량수전 불사를 일군 3대 교구장 정우 스님은 JSA법당 경내에 공적비를 봉안할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4년간 달려온 여러분 응원합니다”

동국대, 가을 학위수여식…학 · 석 · 박사 1687명 배출



동국대(총장 보광)는 8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8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60명, 석사 535명, 박사 92명 등 총 1,68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지난 4년 간 성실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 서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자”며 “우리 동국인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길 바란다.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모교에 요청하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누더기 스님’으로 잘 알려진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스님은 30년 된 승복을 아직도 기워 입으며 동국대에 장학기금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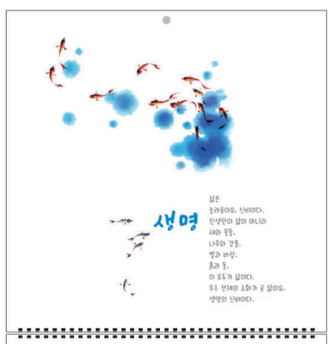
또한, 동국대는 모교 발전에 헌신해 온 김진문 신성약품(주) 회장에게는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카렌다 DONGJIN SAMBO BUDDHISM CALENDAR 삼보불교 불교카렌다 불교한수막 불교인쇄물 기타불교용품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